민족문화연구 제79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79호에는 일반논문 9편과 해제 1편을 합쳐서 총 10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일반 원고로 수록된 논문은 어문학 4편, 역사 3편, 기타 1편이다. 각 분야로 살피면 문학에서는 한문학, 근대 연극, 현대 소설, 한국어학으로, 그리고 역사에서는 고려사, 조선사, 근대사 등으로 고루 게재되었고, 한국 미술 분야 1편이 게재되었다.

총 23편의 투고 논문 중 9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게재율이 39%일 정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그중 3편이 "한국 근대 문예와 공간" 특집으로 게재되었다. 특집에서는 1920-30년대 일제강점기, 1945년 이후 해방기, 1980년대 민주화시기 등 근대의 각 시기마다 연극, 소설, 판화 등 중요한 근대 문예의 각 장르들이 원산의 극단, 해방공간의 서울, 시민미술학교와 판화학교 등의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탐색했다. 이러한 탐색은 근대 한국에서 문예와 공간이 맺는 관계 양상을 탐색하면서 공간의 문제가 문예의 성격과 개성을 구성하는 데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 하는 물음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남석은 "1920-30년대 원산 지역 극단을 통해 본 '중간극(中間劇)' 개념의 발원(發源)에 관한 연구"에서 일제 강점기 두 번째 개항장으로 개방된 도시였던 원산 지역의 대표적 자생극장인 원산관과 전속극단의 생성과 변모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원산 연극계의 고민이 중간극 개념의 태동과 생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 논문은 1920-30년대 원산 지역 연극계가 직면한 문제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들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재구성한 업적으로서, 향후 지역 공간이 연극과 맺는 관계 양상을 탐색하는 지역 극단사 연구의 주목할 만한 모델이 될 만하다.

다음으로, 오태영은 "해방 공간의 재편과 접경/연대의 상상력—이광수의 『서울』을 중심으로—"에서 이광수의 소설 『서울』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체재 변동에 따른 공간 재편에 조응하여 이동하는 주체들이 창출한 남한 서울의 공간성을 민족적 공간으로 통합되고 균질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넘어서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혼종적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주목했다. 이 논문은 근대 민족국가적 공간성 안에서 '삭제되고 은폐된 반민족적 공간들'의 탐색이 다양한 세대, 계층, 지역, 젠더적 주체들이 이동의 과정에서 수행했던 공간들에 대한 주목을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최근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유리는 "검은 미디어, 감각의 공동체—1980년대의 시민미술학교와 민중판화의 흐름—"에서 1980년대 민중미술의 매체로 등장한 민중판화에 대해 정치편향적이고 완성도 낮은 미술이라는 기존 관점을 재검토하면서 국가와 자본이 규정하는 미술로부터 이탈하고 역행하는 '감각의 정치'라는 관점을 제기하고, 1980년대 판화운동에서 시민미술학교 등 기성작가들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시민 대중들이 제작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인식에 기여한 미디어로서 판화의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전시장이라는 공간과 전문성의 추구라는 작가의 자리를 벗어나서 미술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판화 미술활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미디어'적 측면을 조명함으로써 예술적 전문공간을 넘어서는 미디어적 공간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특집 외에도 역사, 문학, 어학 분야에서 6편의 일반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진한의 "『三國遺事』의 高麗 睿宗代 佛牙 將來 說話와 그 將來者에 대하여"는 고려 예종(睿宗)대 송에서 전래된 불아(佛牙)에 대한 설화 자료를 역사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고려 불교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했던 예종대 불사리 전래의 역사적 배경을 정밀하게 해석하였다. 특히 인종대 정국 변화와 연관지어 『고려사』의 왕자지와 『삼국유사』의 정극영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삼국유사』의 신빙성과 『고려사』 기록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한편, 『삼국유사』의 기록이 종교적으로 도교를 숭상하고 외교상 여진을 끌어들이면서 불아를 내버렸던 송나라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불아를 수입한 고려인과 고려 왕실의 번영을 당위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음을 해명하였다.

김윤정의 “조선후기 王朝禮와 私家禮의 변주—國恤 중 사가례 논의를 중심으로—”는 『국조오례의』로부터 영조대 『국조상례보편』에 이르기까지 국휼 중 사가례 논의를 시기별-논점별로 정리한 연구로서, 조선후기 예학의 발전 양상을 잘 드러낸 연구다. 이 연구는 방대한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연구의 바탕 위에서 국휼 중 사가례 논의라는 비교적 참신한 주제를 충실하게 다루었으며, 조선 예학의 주요 논쟁과 논점들을 예의 구체적 실행과 결부시켜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회는 “이중환의 『택리지』 개정과 이본의 형성”에서 『택리지』의 이본을 계통별로 정리한 논문으로서, 이중환이 사망 전에 초고본을 개정한 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가정을 세우고 이본의 비교 검토를 통해 150종에 이르는 다양한 이본 텍스트들의 근본적 차이가 초고본과 개정본의 전사 과정에서 일어났음을 설명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의 집성작업과 정본화를 위한 교감작업 가운데 다양한 이본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서지학과 문헌학 및 내용 검토 등을 거쳐 다양한 사본의 계통 분류 및 초고본과 개정본, 정고본과 전사본 등의 발전과정과 양상을 해명하는 연구들을 위한 시론으로서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병욱은 “전시기(1937-1945) 반일언동 사건과 식민지 조선 민중의 의식 — 식량 관련 ‘유언비어’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일제 강점기 전시기(1937-1945) 식민지 권력이 남긴 반일언동의 유언비어 자료를 유형별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공식적 언어로 표출되지 않는 민중의식의 저류를 살폈다. 특히 거의 반에 가까운 이야기를 차지하는 식량 관련 유언비어를 식민지 권력에 대한 ‘민중적 저항’의 관점에서 해석하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체념과 순응’의 관점에서도 독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규명했다. 이 연구는 유언비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건 혹은 현상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중층성 혹은 다면성을 고려하는 모범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김지영은 “웃음, 혹은 저항과 타협의 양가적 제스처—1950-1960년대 조흔파의 명랑소설(성인)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 소설에 한정되었던 조흔파

의 명랑소설을 성인 대상 소설로 확장시켜 조흔파 작가론과 한국 명랑소설의 영역을 넓혔다. 특히 1950년대, 1960년대 조흔파 소설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시대적 의의와 연결하여 섬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위선적 현실을 조롱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저항과 타협의 이중성을 지닌 쥬이상스적 웃음으로 설명하였다.

하영우와 신우봉의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은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지역어가 7모음 체계이며 모음 실현에서 세대별 변이를 보인다는 것을 논증하였으며, 연구자의 직관을 근거로 논의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제 음성 자료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객관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형적인 화자로 간주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에 실린 글은 정해은의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공거문초』해제"이다.『공거문초』는 정조대 이후 상소문들을 모아서 편집한 자료집이다. '공거문'에 속하는 자료들 중 다양한 형태의 공거문을 모아서 편찬한 '공거문초'의 유일본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자료집은 순조 집권 중후반기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비롯한 주요 정치적 사건들과 정국 상황을 연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도움을 준다.

『민족문화연구』제79호는 한국문학과 한국사 연구를 중심으로 중진학자와 소장학자들의 연구가 게재되어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시도와 양상을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밑거름 삼아 향후 더욱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한국학 연구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